



2026학년도 TEAM JANGWON

고려대학교 인문논술 대비 모의고사

제작: Jangwon_주영

2026학년도 TEAM JANGWON 고려대학교 인문논술 대비 모의고사 문제

①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이러한 본성을 인의예지 네 가지로 규정하였다. 고통에 빠진 타인을 측은히 여기는 동정심, 즉 측은지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다고 보고, 측은한 마음은 인간의 의식적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쌍한 타인을 목격할 때 저절로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 즉 타인의 힘이 아닌 자력으로 수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맹자 수양론의 기본 전제이다. 맹자의 성선설은 국가 공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호족들 및 지주들이 선한 본성을 갖춘 자신들을 간섭하지 말라는 이념적 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선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은 국가 질서, 학문, 관습 등과 같은 외적인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본 맹자의 논리는 현실 사회에서 국가 공권력과 사회 규범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논거로 작용하였다.

② 이를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흔연일체 믿어 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둬 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③ 도킨스는 동물의 이타적인 행동은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와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더 많은 자신의 복제본을 퍼뜨리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유전자란 다음 세대에 다른 DNA 서열로 대체될 수 있는 DNA 단편으로, 염색체상에서 임의의 어떤 DNA 단편은 그와 동일한 위치나 순서에 있는 다른 유전자들과 경쟁 관계에 있다. 그는 다윈과 같은 기존의 진화론자와 달리 생존 경쟁의 주체를 유전자로 보고 개체는 단지 그러한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운반체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타적으로 보이는 개체의 행동은 겉보기에만 그럴 뿐, 실은 유전자가 다른 DNA와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인 셈이다. 이러한 도킨스의 이론은 개체를 유전자의 생존을 돋는 수단으로써 규정한다.

④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 즉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박애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차등의 원칙은 박애의 자연스러운 의미, 다시 말하면 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타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보다 큰 이익을 가질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관념에 부합한다. ... (중략) ... 롤스는 협력 구도를 선 그 자체로 간주하고 있지만, 협력 주체들 스스로의 이익에 부합할 때 행위의 동기가 유발된다고 보았다. 롤스는 불평등한 몫의 기능은 개인들을 가장 필요한 장소와 집단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보다 유리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인센티브로 작용함으로써 경제 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롤스는 더 많은 소득과 더 나은 전망을 보장할 때 사람들이 까다로운 훈련과 교육비를 감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보다 유리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사회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⑤ “야생 조류나 야생 동물뿐 아니라 임산 금지와 낙엽 채취를 비롯해서 자연을 보호하자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라는 것을 알 만한 분이 왜 이런 짓을 했어요? 꿩이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비록 참새 한 마리라도 그것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보호하자는 건데, 보호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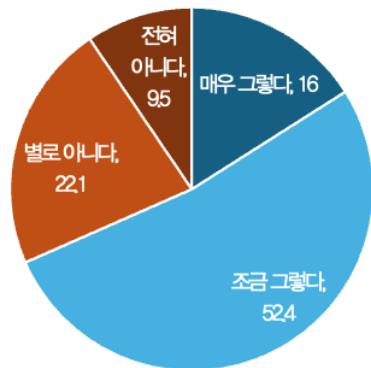
판사가 거듭 나무라서야 용모가 대답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눅이 들었거나 겁이 질린 음성이 아니었다.
“물론 그렇지유. 그러나 말입니다. 꿩은 말입니다. 과연 현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보호할 건 보호해야 마땅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실지 농작물을 망치는 해조(害鳥)는 으레 참새만 긴 줄 아시는데 말입니다. 꿩의 피해는 말입니다, 사실 농군에게는 말입니다, 훨씬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중략) 예. 제가 잘못한 것은 제가 벌을 받아야 옳습니다. 예, 받겠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저도 법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여기는 바깥허구 달려서 여러 가지 것을 보호하는 법정이라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디 말입니다, 동물에 물격(物格)이 있으면 저두 인격이 있으니 말입니다, 저두 야생동물-아니 그게 아니라, 야생 인간인디 말입니다……. 야생 인격이 물격보다 두 거시기하면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 1】 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고 그것을 근거로 아래 ⑥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pm 50자)로 작성)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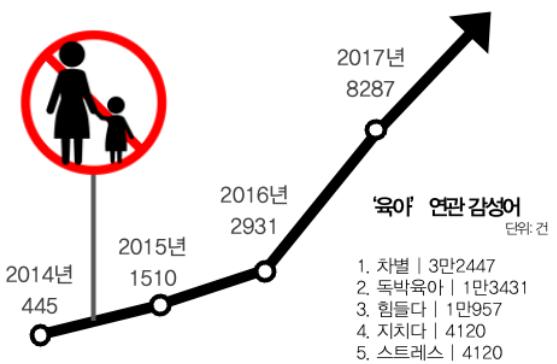
'한국에서 인종차별이 존재하는가?' 설문조사 결과

대상: 이주민 당사자 338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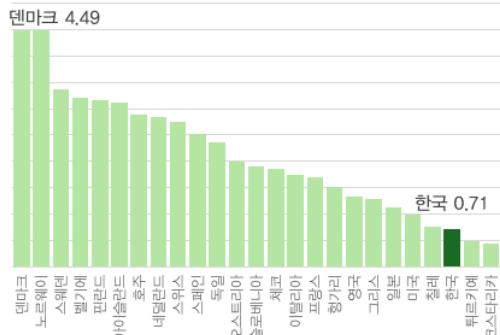


'노키즈존' 언급량 추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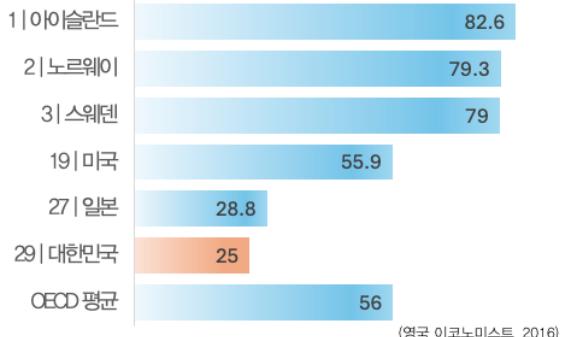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율



우리나라의 유리 천장 지수

단위: 점



【문제 2】 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옹호나 비판 어느 한 쪽의 입장에서 아래 글 ⑦의 화자가 주장하는 바를 평가하시오. (50점, 답안지 2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⑦

그리하여 땅값이 날로 높아지다 보면 부근의 한 자 한 치의 전토도 깡그리 부자의 손아귀로 들어가고 마는 결과가 됩니다. 진실로 이에 대한 법제가 수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온 나라가 겸병(兼併)*하는 집안에게 매달리고, 군읍은 다만 양전(量田)한 헛 장부만 끌어안고 있는 셈이 됩니다.

...(중략)... 다행히 성대한 시대를 만나 독자적으로 한 국가의 제도를 마련하였으니, 마음의 자세를 정밀하고 순일하게 가지고 탕평(蕩平)을 표방하는 정치나 토지의 경계를 정리하고 백성의 소유를 균등하게 하려는 정책은 옛 성왕(聖王)과 처음부터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토지 소유를 제한한 후라야 겸병한 자가 없어지고, 겸병한 자가 없어진 후라야 산업이 균등하게 될 것이고, 산업이 균등하게 된 후라야 백성들이 모두 안정되어 각기 제 토지를 경작하게 되고, 근면한 사람과 나태한 사람의 구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면한 사람과 나태한 사람의 구별이 드러나게 된 후라야 농사를 권면할 수가 있고 백성들을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이 농업 정책에 대해 다시 군더더기 말을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유하자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물감이 갖추어져 있고 그림 솜씨도 뛰어나다 하더라도 종이나 깁과 같은 바탕이 되는 것이 없으면 붓을 댈 곳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분수에 넘침을 피하지 않고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겸병(兼併): 귀족, 토호나 양반 관리 등에 의한 대토지의 소유를 일컫는 말

2026학년도 TEAM JANGWON 고려대학교 인문논술 대비 모의고사 답안지

【문제 1】 답안 작성

【문제 2】 답안 작성

2026학년도 TEAM JANGWON 고려대학교 인문논술 대비 모의고사 해설

| 출제 의도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회>, <통합사회>, <문학>, <사회·문화>, <독서> 등 교과가 다루는 ‘사회 정의와 윤리’,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 ‘문학의 인식적 기능’, ‘세계화와 정보화’, ‘정보를 활용하는 독서’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적 약자 차별 양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회>, <통합사회>, <문학>, <사회·문화>, <독서> 등 교과가 다루는 ‘사회 정의와 윤리’,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 ‘문학의 인식적 기능’, ‘세계화와 정보화’, ‘정보를 활용하는 독서’ 등을 바탕으로 ‘화자’의 관점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 문항 해설

- 【문제 1】의 ⑥은 대한민국의 인종 차별 실태, 유리 천장 지수, 장애인 지원 미비, 어린이의 공간적 배제 심화 등을 통한 우리 사회의 소수자 차별 등을 도표와 그래프를 통해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각각 제시문의 관점에서 서술할 수 있는지 평가함
- 【문제 2】의 ⑦은 토지 소유 제한 정책이 과도한 부의 불균형 완화 및 산업의 균등화와 민생의 안정을 가져오고 이를 바탕으로 백성의 권면을 일깨울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각각 제시문의 관점에서 옹호 또는 비판을 다양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 평가함

| 채점 기준

【문제 1】	제시문 ①, ②, ⑤를 활용하여 답안을 구성했으며, 각 지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⑥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의 근거로 삼은 경우, 높은 점수 부여. 단 ①, ②, ⑤외의 제시문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문제 2】	1. ‘옹호’의 입장을 선택한 경우, ⑦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②, ④, ⑤를 골라 ⑦을 옹호하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함. 그러나 다른 제시문을 근거로 선택한 경우에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2. ‘비판’의 입장을 선택한 경우, ⑦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①, ③, ④를 골라 ⑦을 비판하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함. 그러나 다른 제시문을 근거로 선택한 경우에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제시문 출처

- ①: 맹자의 성선설 | 2019 고1 6모 국어 변형 | 내용 발췌 및 수정
- ②: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2024 수능 기출
- ③: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 2021 고2 3모 국어 변형 | 내용 발췌 및 수정
- ④: 롤스(J. Rawls) 정의론에 내포된 협력적 사회관과 공동체주의적 요소 | 강수정 | 내용 발췌 및 수정
- ⑤: 이문구 「여요주서(與謠註序)」 | 연세대학교 인문 2015 기출 | 내용 발췌 및 수정
- ⑦: 연암 박지원 ‘백성의 명전을 한정하는 의논’ | 내용 발췌 및 수정